

마사 로슬러의

“Why Are People
Being So Nice?”
함께 읽기¹

① 박선호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때때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해가 길어졌고, 옷차림이 가벼워졌고, 거리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겨울을 잘 보내주는 법을 고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임시로 소속되어 있는 날들이 쌓여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즐거운 일을 하며 지냅니다.

얼마 전 홀로 낯선 땅을 여행하며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않던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로움과 쓸쓸함을 만끽하며 잔잔한 몇 주를 지내던 중에 제 발길이 닿았던 곳은 암스테르담의 한 예술 전문 서점이었습니다. 예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루는 책들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고 가볍지만 적당히 두꺼운, 윤기 나는 핑크색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What's Love (or Care, Intimacy, Warmth, Affection) Got to Do with It?〉이었습니다.² ‘사랑(Love)’.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 단어가 눈에 밟혔습니다. 책 제목이 낯 뜨겁고 새삼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감정과 얽힌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겠다 기대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이 책에 실린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미술가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가 쓴 〈Why Are People Being So Nice?〉라는 글인데, 제목이 무척 도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스하게 굴어?’. 선생님은 질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사 로슬러는 글 전체에서 ‘Nice’라는 단어를 화두로 잡습니다. 로슬러가 미국인 여성 작가임을 생각하며, 작가가 ‘Nice’라고 칭찬 단어의 뜻을 떠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작가는 국가의 산업 구조 변화, 경제적 수익 모델의 변화를 거쳐 미술 노동과 신자유주의 속 노동과 얽힌 예술(미술)의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제게 이 글은 예술과 관련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 그와 얽힌 현상을 다루는 글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문장과 문단을 발췌해 글 속으로 불러와 봤습니다.

1 이 글은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의 “Why Are People Being So Nice?”를 읽고 쓴 글로, 원문의 일부를 발췌·번역하여 본문에 수록했음을 밝힌다. 원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Rosler, M. (2016.11.4). Why Are People Being So Nice?. *e-flux journal*, 77. URL: <https://www.e-flux.com/journal/77/76185/why-are-people-being-so-nice>

2 RANDA, Julieta, R. et al. (Eds.) (2017). *What's Love (or Care, Intimacy, Warmth, Affection) Got to Do with It?* London: Sternberg Press.

마사 로슬러는 아래의 문장으로 글의 입구를 엽니다.

만약 정동이 감정의 체현 과정으로부터 비롯한다면, 왜 모두 너무나 친절하려 하는지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술과 미술 작품의 역할이 달라지며 노동 형태가 변화하고 그 경험의 결과인 ‘감정’을 꿰뚫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미술 작품은 한때 작가만의 신성하고 고유한 생산물이었습니다. 이후의 미술 작품은 여러 고민의 시간을 거쳐 형태와 의미의 직조방식을 바꿔왔습니다. 저나 선생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죠. 로슬러는 미술과 미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체험 경제(Experience Economy)에 봉사하게 되었음을 살피며, 그들이 많은 사람과 교류해야 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기이할 정도로 좋게 변화한 것이 로슬러의 문제의식과 맞아있겠거니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읽어본다면 ‘Nice’, ‘Nice Guy’는 기분 좋거나 예의 바른,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를 칭할 것입니다.

예술계와 저널리즘계— 누가 알겠어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직급 뿐 아니라 전문인력에게 “24/7”근무일을 부과합니다. 서비스직(음식 서비스업, 청소, 벨 호핑)과 소매업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불안과 불확실한 근무일을 강요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인 서열에서 더 아래 위치에 둡니다. 팁을 받기 위해 비굴하게 굴거나, 아부하나요? 상냥함/다정함에 대한 좋은 온라인 “피드백”을 얻기 위해 우버 운전사처럼 수작을 겁니까? 모든 과정은 반드시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행동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제게는 이 글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친절함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이 믿음과는 다르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같이 잘 지낸다’는 방식도 개인마다 무척 다르겠지만요) 어려웠기에 저의 행동이나 실수, 말버릇을 탓하고, 곤란한 상황 앞에 도망치거나 비굴하게 행동했습니다. 로슬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저를 밀어 넣어 생각해 보니, ‘OO님, 제 미술 작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님께 제가 무엇이든 이로운 경험을 제공했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저라는 사람에 관한 의견과 소문을 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진정 타인과 관계 맺고 있는지 되문게 되었습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좋은 이웃 관계 맺기의 필요보다 더 깊게
요구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대량 발명, 성과, 업무적 "자아"의
영구적인 손질에 대한 요구를 말합니다. "정말 좋다"는 실제로 "마찰 없음"
혹은 "저렴한 거래 비용"을 뜻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교리는 "사회와 같은
것이 없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던, 직업적 성공 혹은
우정에 대한 모든 결과에 완전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 믿음과 그로부터 비롯된 행동의 결과가 '경험/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로슬러의 말처럼 '마찰 없음(frictionless)'을 위해
폭신한 말과 안전한 처신을 택하게 된 것인지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돌봄 형태라면 저는 유아적이고, 안락한 감정을 들게 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겠죠.

국가에서 추방된 여성적 관행인 "돌봄"의 과시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봇"과 멀리 떨어진 콜센터 직원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지향적 교류는 아늑하고 유아적 따스함으로 당신을 감싸기 위한
것이고, 진짜든 가짜든 모든 기업 직원들은 그 근거들로 "피드백"과 평가에
열려있습니다.

이 현상이 현재의 시점에 짠-!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및
귀족 사회 속 노동의 유구한 전통과도 얽혀있다는 로슬러의 진단은 일과
문화의 위상이 변해왔고, 이 영향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미술관과 박물관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속 참여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술계가 귀족, 오르-부르주아 엘리트에 사로잡힌 집단들 그리고 아마 반쯤
굶주린 집단에 비유되어 온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의와
열망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야망, 접근성, 돈벌이가 되는 정보, 아첨,
가십, 내분, 경쟁심, 매너와 신체적 내보임 역시... 내부의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모든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 고개숙여 깊게 인사하는 한 무리의 신하들은

생산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공인된 위치인 법정 혹은 더 나쁜 뒷방에 있습니다. 예의 바름이 드러나는 방식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드러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토지를 가진 계층에게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위를 맞추는 일이 땅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왕국에서 무자산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 이 지리적 가치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치 있는 자산을 배포하기 위해 고용된 큐레이터의 위엄있는 모습으로 반향을 가집니다. 주로 여성 지지자들이 있는 예술의 왕국에서는 1주일에 5일, 35~40시간 근무(대부분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필수인) 이외에 추가로 근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 하는 일이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은 구성원들이 “상시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까이 근무 주수를 채웁니다.

가치가 있다 여기는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상황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욕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항시 대기 상태로 굶신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박물관, 갤러리 그리고 예술가들 사이의 이메일을 통한 예술계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캐주얼하지도 아주 격식을 차리지도 않는 아주 제한된 비유를 보여줍니다. 이는 최근에(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언어적 세계에 놓여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우 정교한 안부 문기와 끝인사로 묶여있습니다. 이 업무 과정에서, 여전히 공식적인 표기법인 “I Dear”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공식은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이며, 이는 에어 키스(air kiss)보다 의미가 없는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사적 침입이 됩니다. 이 막연한 육체적 호출은 빅토리아 시대의 서한체 방식 같은 상상의 후퇴이며, 의례가 아닌 방식의 공손함을 상상하게 합니다. 좀 더 구어체로 풀어 표현하자면 “Best Wishes”는 “All best wishes”로, “I have a nice day”는 “I have a great day” 등등으로 부풀어 올라 표준 서명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서신 작성 문화보다는 상점-보조 문화에서부터 더 많이 유래하지만, 결정적으로 격식 있는 폐점을 대체했습니다.

저와 같은 떠돌이 일꾼들은 언제 어디서든 업무와 관련된 소통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자리를 잡은 뒤 메일을 보냅니다. 오늘도 여러 통의 메일을 쓰며 수신자들을 위한 인사말을 고민했습니다. 봄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춥다는 말과 함께 질병 앞에서 건강한지를 묻습니다.

안부를 건네는 일이 표준 서명화된 인사말처럼 그저 일들이 잘 굴러가기 위한 한 가지의 방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최소의 방식으로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예술계도 1960년대 이후 세계화 경제에 진입했고, 예술가들은 종종 유동적인 제도와 자본의 요구에 따르는 떠돌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의해 굴러가는 예술계와 점점 더 제도화되고 경직되어가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의 악몽에 대해서 불평할 때, 우리가 그곳에 종종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주며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탐색이 소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일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예술. 그것을 둘러싼 일. 글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 있다 믿는 일을 할 때 친절을 가장한 행위를 제공해야 할까?’, ‘이러한 방식의 친절을 제공하는 일이 과연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일에 꼭 필요할까?’ 물었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아니오’ 였지만, 대부분 그리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슬러가 이야기하듯(비록 로슬러와 사는 나라도, 나이대도, 관심사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구조에 속해 있음을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90년대에 태어난 소위 ‘신자유주의 키즈’인 저 역시 경쟁 사회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내보여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속 지워지는 감정의 영역. 감정이 체현되는 상황에서 순수한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이 이미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다는 것을, 가벼운 안부조차 표준의 절차 속에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순수한 선함과 친절함의 송수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요.

글을 모두 읽고 난 뒤에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역시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과 선함을 베풀며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제 생애 깊이 마음 쓰고 가치 있다 여긴 세계의 일을 함부로 평하고 싶지 않았기에 지나치게 낭만적인 시선으로 글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글을 읽으신 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㉓